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역경제 성장 보탬

19일 기준 주민 신청률 97%
3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41%
9월30일까지... 미사용 소멸
2차분 추척 이전 지급 예정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한 영광군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고 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 19일자로 종료됐다. 총대상자 5만2333명 중 5만1268명이 신청해 97.96%의 신청률을 보였다. 지난 2022

년 재난(행복)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률인 97.6% 대비 0.36% 더 높은 수치다.

지원금은 신청자 5만1268명에게 256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2만7166명(53%), 오프라인 2만4102명(47%)으로 온라인 신청이 3064명(6%)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높은 수요로 지난 19일 기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용액은 지급액 256억원의 61%인 15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매출구간 3억원 이하에서의 사용액이 41%로 가장 높아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원활한 지원금 사용을 위해 신청

기간 중 무료로 배부했던 영광사랑카드를 지난 20일부터 재발급(분실 등) 시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배부하고 있다.

특히 카드 분실 시 남은 잔액 옮기기와 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스마트폰 '그리고' 앱에 본인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수당별로 카드를 여러장 소유하거나 본인 스마트폰에 부모 또는 자녀의 카드를 등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1차 지원금 신청 시 기존 소유카드 미활용 또는 사용 불가로 재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소모가 많아 2차 지원금 신청에 대비해 철저한 카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전액 소멸된다.

이번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19일자로 마무리됐으며 2차분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 예정이다. 2차 지원금 또한 1차 지원금의 지급 기준일(2024년12월27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차 지원금 지급이 잘 마무리됐다"며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은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함평군, 주요 시가지 집중

함평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25일 함평군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 주요 도로, 시가지 일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전남도 공공목적 광고물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정당별 최대2개)에 따라 지역정당에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한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하는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아파트 신규 분양광고물이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정비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과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소방 시설 주변·상가 밀집 지역·주요 교차로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화순군, 민간위원 19명 선발

화순군은 지난 24일 화순군청 사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화순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표 협의체 민간위원 19명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올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 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 19명 등 총 24명을 구성했으며 민간위원장으로 성지풍 위원, 부위원장으로 김민숙 위원이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역 사회복지의 민·관 협력 구심점 역할을 맡아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조사,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위원장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행복한 복지 화순을 위해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지풍 위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복지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동화나라 원생들이 올바른 양치질을 배우고 있다.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17일과 24일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보건소,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화순군은 지난 17일과 24일 관내 동화나라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현장 체험인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올바른 양치법, 흡연 예방 교육 등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보건교육을 진행해

아동기 건강 생활 습관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견학에 참여한 원아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보건소 진료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등 13개 민원실을 방문해 보건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형 및 영상자료로 보건교육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영양사등이 직접 보건소에서의 역할 설명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 한층 알아보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해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이를 위해 화순군과 군의회,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공개모집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지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임원 모집 요강(안) 및 심사 배점 기준(안)을 결정했다.

모집 공고는 오는 3월10일까지이며 지

원서 접수는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문화관광사업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조직의 변화·혁신을 주도하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자로 유관기관·단체와 소통하며, 대외관계를 형성·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선임을 통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히 면접 심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직무수행계획 발표(PT) 등 심층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서와 제출 서류는 화순군문화관광

재단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fct.or.kr) 또는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061-373-548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가입 당부 화순군, 농작물 피해 사전 대응

화순군이 대설·한파·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가입을 당부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는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40개 작목에 대한 기상·재해 정보 26종 및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농장날씨와 정보를 알려주는 정기알림과 기상재해가 예측될 때마다 알려주는 수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는 정기알림을 폐지하고 특정 재해 예보 시 위험 지역을 선별해 해당 지역의 가입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연중 수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농가는 스마트폰(www.jares.go.kr/agmet/mobile/login.do)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61-379-5412)에 도움을 신청하면 된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의 상시화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경보 서비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농업인들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에 적극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